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의 경험과 의미*

고 은 정**

청주혜화학교

임 경 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순회교사들의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충북지역의 순회수업 담당 교사 10명이었으며,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포괄적 분석절차를 통하여 2개의 상위범주, 6개의 하위범주, 18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의 경험과 의미는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 각자도생(各自圖生)’,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걱정 순회교육을 향하여’의 2개 상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6개의 하위범주로는 ‘적용할 교육과정의 부재’, ‘형식적인 IEP와 교사 혼자만의 고뇌’, ‘소외감과 위험함’, ‘순회수업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적정인력, 적정계획, 적정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과 발전 방안 및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순회학급, 순회학급 교육과정, 순회수업, 순회교사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축약·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aim-2005@daum.net)

*** 교신저자 (deobullife@kongju.ac.kr)

1. 서론

인간은 누구나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삶의 질을 성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의 당위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학교교육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특수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의 기회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병원, 장애인보호시설 등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도 예외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입학이 어렵거나 통학이 어려워 가정이나 병원 혹은 장애인보호시설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정대영, 1997). 이에 1963년 3월 부산시에서 가정 방문제 특수학급을 개설하고 128명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최초로 순회교육을 시작하였고(전현선, 1998), 이후 순회교육은 전국의 가정, 병원, 장애인 보호시설로 확산되었다. 1994년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중도·중복장애로 인하여 교육권 밖에 놓여있는 장애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정동영 외, 1996). 2005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농산어촌 장애아 순회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법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여러 특수교육지원 업무 중 하나로 가정, 시설, 병원,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순회교육을 수행하게 되었다(박선정, 2012).

201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순회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6,483명으로, 그 중 가정에서 1,293명(19.9%), 장애인보호시설에서 1,510명(23.2%), 병원에서 28명(0.4%)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수학급미설치교의 경우 3,652명(56.3%)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이 5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순회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중숙, 2002; 이동원, 류재연, 박경옥, 2013; 이재현, 2013; 정동일, 2001, 최하영, 2011; 황금희, 2004), 둘째,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김혜정, 2015; 김현집, 손승현, 2010; 이귀숙, 2005; 이금하, 2008; 이시현, 2013), 셋째,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나 직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소라, 2009; 이경태, 2015; 이미숙, 2013; 전현선, 정재익, 2003; 조영훈, 2001), 넷째, 순회교육대상학생의 부모에 관한 연구(권순황,

2004; 송여미, 박희찬 2014; 옥정달, 2004; 한경섭, 2013; 한정희, 조윤경, 2004), 다섯째, 순회치료교육 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안수경 등, 2005; 이상복, 김종환, 조재규, 2007; 전현선, 민강기, 2007)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들은 순회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움, 그리고 포괄적인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순회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순회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과 함께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한다(이혜전, 임경원, 2012). 순회교사들도 자신의 수업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며 중도·중복장애 순회교육 대상학생에게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회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질 영역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내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런 자료들이 순회수업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으로 활용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는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순회교과목을 재량으로 선정, 교육내용을 편성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른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서중숙, 2002)과 무관하지 않다.

‘2010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총론 일부와 기본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2015년 현재, 특수교육현장은 ‘2011년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보편적 교수설계(universal design for instruction) 또는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원리에 입각하여 일반교육 접근 강화를 통한 교육과정 통합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전병운, 임해주, 김정민, 2014). 이는 현재의 기본교육과정이 보편성을 더 강조한 결과 기본 교육과정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오세웅, 2014)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일조하였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지도를 위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한다(전병운, 2013b). 그렇지만 현행 ‘2011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일반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며, 교과 위주의 내용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전병운, 2013a). 이는 2014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장애유형의 다양성 및 장애정도의 증증화’에 대한 의견이 높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교육부, 2014). 따라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해 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 절실히 필요(김은주, 강영택, 권택환, 이인, 2013)하다. 이를 바탕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해 개발되어야 할 대체·대안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에 의한 교과목 위주가 아니라 실생활 위주의 기능적인 내용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전병운, 임해주, 김경민, 20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시·도의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순회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학생의 건강상태나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30일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순회교육 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적용은 온전히 순회교사 개인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게다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장애 상태와 특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심하고, 장애 정도가 중도·중복화 되고 있기 때문에,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며,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에 맞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전현선, 민강기, 2007). 순회교육 담당교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순회교육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은숙, 김정연, 2013; 박미숙, 2006; 소라, 2009; 이경태, 2015; 이미숙, 2013; 이재현, 2013).

그러나 순회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순회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순회수업을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김은숙, 김정연, 2013; 박미숙, 2006; 서종숙, 2002; 소라, 2009; 양금란, 2006; 이경태, 2015; 이미숙, 2013; 이재현, 2013).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수준의 연구가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순회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 및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순회교사들의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의 질문은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의 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충청지역의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10명을 목적표집과 눈덩이식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며, 참여자의 세부 정보는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	순회교육 근무지	소지자격	교육경력	순회교육 경력
A	여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중) 정1	6년	6년
B	여	특수학교	특수(초) 정1	17년 2개월	3년
C	여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중) 정1	17년	3년 2개월
D	여	특수학교	특수(중) 정1	7년	3년
E	남	특수학교	특수(초) 정1	4년	1년
F	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초) 정2	7년 2개월	7년 2개월
G	남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유) 정2	7년 2개월	7년 2개월
H	여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초) 정1	17년 2개월	3년
I	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유) 정2	6년 2개월	5년 2개월
J	여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초) 정2	5년 2개월	3년 2개월

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 면담은 2014년 8월 한 달 간 연구자와 같은 시설로 순회교육을 나가고 있는 교사 A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이루어졌다. 당시 순회교육을 처음 접한 연구자는 순회수업 교육과정에 대한 특징적인 질문 이외에도 순회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폭넓은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예비면담과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순회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면담 질문지는 소라(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반구조화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예비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면담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다음 연구진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면담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였다. 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경험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술될 수 있도록 유의하였으며, 또한 연구 참여자가 구술하는 내용에 따라 질문의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면담 가이드라인

면담 범위	면담 내용
- 연구 참여자의 개별 특성	- 성별, 연령, 소지자격, 경력 등
- 순회수업 교육과정 운영	- IEP설계,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 교육과정 적용, 순회교육의 유형에 따른 장애정도, 수업시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 중도·중복장애 순회교육대상자	- 중도장애 교육과정 적용, 치료활동, 수업 운영, 교재·교구
- 순회교육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요소	- 직무연수, 부모교육, 행·재정적 지원 등

연구자는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가 근무하는 학교 혹은 조용한 인근 장소를 선택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휴직자의 경우 연구 참여자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의 경우 퇴근시간이 학교에 비해 늦은 점을 감안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보이스 레코더(XP77)와 연구자의 휴대 전화(삼성 SHV-E330S) 녹음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여 중복 녹음하였으며, 녹음과 동시에 연구자가 면담지에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의 핵심 단어를 간략하게 메모하면서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회당 약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에서 질문을 해 나가는 담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녹음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전사되었으며, 이렇게 전사된 자료는 면담 시 획득한 연구 참여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면담 내용에 대한 기록의 이상 유무를 검토 받았다. 전사된 분량은 글자크기 10포인트, 자간 0, 줄 간격 180으로 A4 용지 총 142쪽이다.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면담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순회교육 담당 교사와의 면담 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연구 문제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이동성, 김영천, 2014)를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반복적으로 질적 자료를 읽고 자료를 정리하였고 둘째, 연구자의 통찰을 통해 분석적 메모를 썼다. 셋째,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1차 코딩을 실시하고, 넷째, 여러 코드와 범주들을 분류하여 보다 추상도 높은 범주를 만들어내는 2차 코딩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2차 코딩 자료를 바탕으로 각 코드를 대조하여 통합, 재구성, 삭제, 이동함으로써 문화적인 주제를 발견하여 보다 높은 범주를 만들고 그 특징과 관계를 살펴 순회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3차 코딩을 통해 도출된 명제, 가설, 이론 등을 표로 재현하였다. 이와 같이 6단계의 분석절차는 표면적으로 순차적인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순환적이며 반복적이고, 연역과 귀납의 논리를 오가며 질적 자료를 정제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4.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윤리

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범주화 과정에서부터 주제 도출까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 2명에게 수시로 과정에 대한 검토를 받았으며, 정기적으로 집중적인 연구진 간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10명에게 연구자가 도출한 연구 결과의 검토를 요청하는 구성원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기 전에 대면 요청이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한 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를 작성하면서 연구에 대한 모든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학교명과 근무지를 밝히지 않고 특정 알파벳 기호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들의 경험과 의미는 18개의 의미단위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시 ‘적용할 교육과정의 부재’, ‘형식적인 IEP와 교사 혼자만의 고뇌’, ‘소외감과 위험함’, ‘순회수업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적정인력, 적정계획, 적정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6개 하위범주,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 각자도생(各自圖生)’,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적정 순회교육을 향하여’의 2개 상위범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표Ⅲ-1>과 같다.

<표 Ⅲ-1>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들의 경험과 의미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순회학급교육 과정운영? 각자도생 (各自圖生)	적용할 교육과정의 부재	최중도 학생에게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함
		최중도 학생은 기본교육과정 적용조차도 어려움
		치료와 교육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순회교사
	형식적인 IEP와 교사 혼자만의 고뇌	구성은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순회 IEP작성은 시간과의 전쟁
		IEP라는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은 부끄러운 내 모습
	소외감과 위험함	미설치교에서는 찬밥인 순회교사
		위험과 함께하는 도로 위 순회교사
	순회수업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백일 된 아기 대하듯 반응을 끌어내야 하는 수업
		여러 교육과정을 골고루 활용하는 수업
		교과별 지도보다는 범교과 형태의 수업 운영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적정 순회교육을 향하여	적정인력, 적정계획, 적정교육과정
업무와 순회수업을 병행하기에 적당한 수업시수 운영이 필요		
IEP는 한 학기를 계획하는 것보다 3개월 정도로 짧게 계획하는 것이 더 효과적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초학문적인 접근
		연수나 모임을 통한 정보가 필요한 순회교사
		심리적 건강 회복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

1.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 각자도생(各自圖生)

1) 적용할 교육과정의 부재

순회교육 담당 교사들은 아무리 최종도의 학생일지라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근거한 적절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몸을 만져주는 것 말고도 우리가 제공해줘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장기기능, 몸 뒤틀어지지 않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게 이런 것도 당연히 제공 받아야 하지만 이 아이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태어난 이상 그 아이가 인지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해서 더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촉진시켜서 인간다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B)

중증 장애 학생에게 쉽게 올 수 있는 오류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중략)... 저도 그런 생각에 한참 빠져있었어요, ...(중략)... 학교에 늦게 들어온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6년의 교육을 받고 지금은 중학생이 된 학생이 눈빛도 뭔가를 안다는 눈빛이고 제가 운동을 시켜주면 학생이 좋아하는 타이밍에 웃어주거든요,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의 변화가 일 년, 십년도 걸릴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런 것들, 좋아하는 표현이나 눈빛 같은 거를 보여줬을까?...(중략)...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의 경우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류적 생각을 내려놓고 바보스럽겠지만 되든 안 되든 재미있게 놀아주다 보면 눈에 보이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그 변한 반응에 "선생님, ○○이 너무 똑똑한 거 아니예요?"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20년을 봐왔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웅얼웅얼 거리고 웃고 하니 그 모습이 어머니에게는 똑똑해 보이고 서울대 간 것 같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참여자 H)

교사들은 2011 개정 기본교육과정의 수준이 최종도 학생과 맞지 않아 적용이 어렵고, 수준을 아무리 낮추어 IEP를 설계하여도 적용이 힘들다고 한다.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없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지만, 순회학생의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 교육과정의 재구성도 만만치 않다고 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예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서 하는 편이 낫지만 솔직히 예전 교육과정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또다시 교사의 세밀한 분석이 들어 가야하죠, 다시 선생님이 계획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여자 A)

누워서 눈만 깜빡이는 아이한테도 세계사 가르쳐야 해요? 당연히 반발했죠, 하지만, 특수교육 쪽에 이런 사조가 생겼어요, 특수교사들이 교육적 성취를 위해서 투입은 하지 않고 아이들이 못할 것이다 생각해서 쉬운 것만 반복적으로 가르치려하고, 특수학급 교사는 국어, 수학만 가르치려하고 과학, 사회는 가르치지도 않고 통합에서 가르치겠거니 하는 풍토가 만연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도 특수학급에 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제가 경증 애들 수업할 때는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정말 최중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생명유지가 제일 중요한 애한테 그런 교육과정을 적용해보라는 거는 특수교사나 우리 애들을 기만하는 거죠, (참여자 B)

사실 그 부분은 교사로서 부끄러워요, 항상 IEP 짤 때 그 친구의 한 학기 교육을 책임지는 것인데 내가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짤는지에 대한 거, 그냥 3월 한 달 바쁜 기간 동안..... 작년 저 같은 경우는 초1, 2학년 군을 나름 추려서 IEP를 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만난 학생들은 그것마저도 어려웠거든요, 어느 정도 교과교육과정에 맞추어 월에 맞춰서 작성을 했지만, 실제 학생과는 맞지 않았어요, IEP 따로 실제교육 따로 정말 부끄러운 일예요, ...(중략)... 나름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 맞춰서 짤다고 짤지만..... ...(중략)... 최중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면 안 될까 생각했죠, (참여자 C)

2012 교육과정이 그렇게 만들어 놔잡아요, 그 학년에 속하는 아이에 맞춰서 짜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수준이 그렇게 되나요, 내용 수준은 조정할 수 있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짜야해요, 예전에는 1, 2, 3수준을 섞어서 해도 됐지만요.(참여자 H)

교사들은 순회교사는 수업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적 접근을 해야 하고 치료는 치료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부족할 뿐더러 학생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학부모의 요구가 치료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어설피게 학생을 만지는 거 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즐거운 음악이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수업하는 게 좋지, 치료한다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만지거나 자세 잡아준다거나 하는 거는 전문적이지 않다보니까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치료는 전문적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선생님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런데 부모님이 은근히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감각적 자극을 주는 거에 어머니들이 "저거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가 좋아지나" 애가 좋아하는 반응이 없으니까..... 몸이라도 시원하게 주물러라도 주고 갔으면 하는

엄마들 있어요, 그때는 엄마 동의하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치료 해주고, 만족하시면 두시간 수업에 30분정도... 혈액순환 안 되는 차가운 팔, 다리 주물러주거나, 욕창 방지 위해서 자세 바꿔주는 거나, 이런 경우는 좋은데 팔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다 불안하지.(참여자 A)

치료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어요. ...(중략)...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에 어설픈 학생을 만지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설픈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죠, 교사가 치료 쪽을 한다는 거는 마치 간호조무사가 수술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참여자 E)

나도 고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는 아니지만 마사지 정도는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특수교사의 정체감이 흔들릴 때도 있죠, 나는 특수교사인가 뭐가 하면서요, 전에 계시던 관리자께서는 요즘 애들이 중증화 되니까 애들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거든요.(참여자 H)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마사지정도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여겨 수업시간의 일부 활동으로 수행하거나, 치료와 교육이 하나의 바퀴가 되어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회수업 했던 어떤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자세 동작들을 판넬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중략)... 일주일에 세 번 오는 순회교사한테 그 자세 잡기를 요구하셨고..... 교사로서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기꺼이 해야죠, 치료와 교육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잖아요, 특수교육 범위 안에서 이것은 수레의 바퀴라 생각해요, 수레가 하나의 바퀴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애들은 치료적인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보다 순회 학생들은 교사를 만나는 시간이 적고,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치료야' 라고 벽을 쌓기보다는 치료와 더불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팔 이완 운동을 하면서도 수를 세어보고, 청각적 자극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중략)... 특수교사니까 당연히 교육이 주가 되어 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적 비중이 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참여자 C)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순회수업에 적용할 교육과정이 학생의 수준과 잘 맞지 않거나 적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치료와 교육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택·순회교육 학생 대부분이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순회교사에게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며(옥정달, 2004), 순회교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실제 수업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이동원, 류재연, 박경옥, 2013)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회교육 교사에게 그에 상응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형식적인 IEP와 교사 혼자만의 고뇌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 측면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의 장애로 인해 학부모가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순회교육 범위에서 개별화 팀은 어무한 거 같아요, 법에서 정한거랑은 상관없이 일단 학교에서 회의를 하면 엄마가 못 오잖아요, 순회학생들 돌봐야 되니까, 왜 못 데리고 오냐면 차가 없어서, 대인기피증도 있고, 늙는 휠체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회의를 해야 되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관리자들 빼고는 위원님들이 다 학교에서 수업하는 사람들인데 3주내내 일 안하고 회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회의가 실질적으로 되는 게 어렵고 순회학생 37명중에서 회의에 오세요라고 했지만 실제 회의 참석자는 한명도 없었잖아요, 동의서만 제출하시고..... 재택순회학생만 본다면 특수교육법상에 개별화지원팀은 실제로 기능하기가 힘들죠.(참여자 B)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하려면 진짜 전문가들이 개별화 회의를 할 때 모여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은 뭐겠구나, 그걸 목표로 잡고 담임, 치료사, 보건교사, 방과후 교사, 교감, 행정실장 등등 위원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투입이 되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결정한다면 솔직히 담임교사나 치료교사들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심 안가지고 당당하게 뭐라도 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해요, ...(중략)... 특수학교만큼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축소된 회의도 아니고 제대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H)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 수준 설정을 위한 사전 조사의 어려움, 학기 초 IEP 작성을 위한 시간 부족, 교과별로 나누어진 교육과정 운영의 부적절성 등이 IEP 작성을 위한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초조사서를 작성해서...(중략)... 받아봤더니 엄마들이 텅텅 비워 놓고..... 아이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 거죠, 부모님들 희망을 적극반영해서 짜는 게 당연하지만, 엄마들이 소진상태인 경우가 많고 순회 경우는 엄마들이 24시간 애들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애들 향상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학교 애들보다, 선생님이 적당히 써주세요 하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참여자 B)

아이 수준에 딱 맞는 IEP 짜고 싶은데 애들을 관찰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특히 첫 주는 전화상담도 하고, 시간표도 짜고, ...(중략)... 2주 동안 횡수로는 6번, 시간으로는 12시간 보는데 그 중에서 시설 경우에는 그룹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 보다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재택 경우에 12시간 파악 후에 다소는 가능하지만, 물론 아이가 건강상 이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그럼 애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가 서울에 병원 입원하고 수술해서 계속 얼굴도 못 봤잖아요, ...(중략)... 워낙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우리 애들이 정상범위의 밖에 있고, 좁은 범위라고 하지만 순회 받는 애들은..... 입퇴원 반복하고 생명연장이 목표인 아이는 그 중에도 또 일부잖아요, 그런 애들 IEP 짜는 건 너무 너무 힘들죠, ...(중략)... 재택 애들 IEP 짜는 거 쉽다면 거짓말이죠.(참여자 B)

특수학교 IEP는 종이낭비예요, 교사 잡무만 늘리고 애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행정적인 요식행위지, IEP의 취지부터 다시 살펴봐야 되요, 우리 순회 애들은 중증이다 보니까 과목별로 나눠서 가르친다는 거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범교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중략)... 실제로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눈 돌리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밖에 없는데, 과목별로 뭐뭐뭐 해야 한다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가 밖에 안돼요, 우리 중증학생들 IEP는 과목별로 수업 하는 것 보다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잔존 능력을 하나씩 늘리고 키워나갈 수 있게끔 교과 의미 탈피해서...(중략)... 되는 부분을 추출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참여자 H)

연구 참여자들은 IEP 설계 후 실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 최대한 아이들의 특성이 반영된 IEP를 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IEP 작성에 대한 반성과 고민에 자주 휩싸이게 된다고 하였다.

저는 이번에 4명 짰는데, 일단은 가장 괜찮은 아이를 기본교육과정 내용을 참고해서 짜고 덮어써서 그것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해서 조금씩 다르게 했는데, ...(중략)... 인지가 가장 좋은 아이를 먼저 짜고 고치려고 했더니 너무 다른거예요, 그래서 첨부부터 다시 짜고 나머지 비슷한 학생은 활동을 비슷하게... 언어를 사용 못하는 아이는 언어적인 부분을 넣지 않았고, 언어대신 보완대체

1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의사소통이란 내용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 최종도 경우는 신체 활동을 다 빼고, 본다, 경험한다, 측구에 의해 만져본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참여자 B)

IEP가 실제 수업이랑 완전히 같게 설계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너무 벗어나게 하지는 않죠,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해요, ...(중략)... 만나는 횟수에 맞춰서 매일 해야 하는 것과 인지적 부분들이나, 계절 관련해서 또 학생이 흥미가 있어야 하는 활동이나..... 최종도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친구가 관심을 갖게 자극주고 반응을 이끌도록 실제 수업을 하죠.(참여자 C)

실질적으로 아이와의 괴리가 있으니까요, 모든 게 IEP부터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걸 정말 반성이죠, 내가 IEP를 작성하면서 능부로 따지면 한해 농사인데 씨를 잘 뿌려서 잘 키워야 하는데 그냥 던져 버리고 잘 크겠지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고..... 부끄럽죠, 얼마만큼 고민하고 짚는가.....(참여자 C)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평가와 계획에 필요한 시간 부족, 교과중심의 접근 등이 실제 수업과 IEP 사이에는 많은 괴리를 낳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고 순회교사가 학생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짧은 기간 동안에 IEP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이경태, 2015; 이미숙, 2013). 순회교육은 매우 짧은 교육시간에 중도의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해야한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에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탈피하고 장애학생 개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이고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와 계획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점검을 위한 전문가의 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소외감과 위험성

순회교사들은 열악한 수업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경험하지 못할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었다.

제 옆 반 선생님이 교육청에 계실 때, 미설치교 순회교육을 갔었는데, 그 당시 ○○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1시간정도 이동을 해서 먼지 쌓여 있는 창고 같은 곳에서 수업을 했다고 해요, 순회 장소를 마련해 놓지 않아서 그날그날 장소가 바뀌어서 "오늘은 여기서 수업하세요,"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참여자 D)

6년 동안 하면서 어떤 학교는 되게 누추하고 추운 곳에서 수업할 때도 있었어요. 상담실이나, 위클래스, 유치원의 경우에는 식당에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했네요. 관리자와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환경은 확실히 다른 거 같아요....(중략)... 학교에서 행사가 잡히면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까먹고 수업을 갔는데 학교가 텅 빈 거예요. 학사 일정을 일 년치 받아놓고 미리 연락해 보고 가거나 바뀌면 알려달라고 하면서 학사일정을 참고하기 시작했죠. 너무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아이가 너무 추워하고..... 요구를 하거나 해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기도 했는데...(중략)... 6년을 하다 보니 요구할 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하면 찬밥 신세가 되다보니.....(참여자 F)

겨울에 미끄러운 길에서 심하게 사고 난적이 있거든요. 차 수리비가 650만원이나 나왔어요. 수리한 다음에도 핸들 흔들리고, 승차감 떨어지고... 차 수리비는 개인적으로 처리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 지원도 없었어요. 사적인 일 보고 온 것도 아닌데, 수업하고 학교 복귀하는데 사고 났거든요. 이런 처리는 문제가 있어요. 순회교사 중에서 반 이상이 사고 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기 차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H)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열악한 순회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하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수업 이동 시 교통사고 문제 등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가 경험하지 못할 수많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순회수업 운영을 위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차량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선행연구(김은숙, 김정연, 2013; 이미숙, 2013)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순회교육을 위한 출장에 필요한 공용 차량을 배치하고, 다양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지원을 통해 순회교사가 수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이경태, 2015; 이미숙, 2013)는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가 교육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순회교육 교사들이 매우 소중한 교육의 일 영역을 담당해주고 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이 차량을 지원하거나 안전을 보장하는 일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순회수업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

순회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상태나 흥미 정도를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이한테 필요한 자극을 주는 식으로 저는 수업해요, 우리 애들은 조금이라도 반응을 깨워 주는 게 좋아요,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한번이라도 웃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회교육을 받는 애들이 모든 감각적 자극에 노출이 적은 편이라 잠들어 있는 반응을 깨워 주는 즐거운 수업을 하려하는 편이죠.(참여자 A)

다른 학생에 경우에는 어머니가 잘 돌보시거든요, 저는 인지적 학습만 하고 있어요, 교육적인 방향은 저와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투입하고 있어요,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지루해하는지 파악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애는 다른 아이들처럼 노래 불러주는 거 좋아하고 의성어, 의태어 좋아하고, 책읽어주는 거 좋아하고,..... 지금은 그런 것 위주로 수업해요, 두 아이 다 귀가 밝으니까, 청각적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청각적 자극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하죠, 말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소리도 많이 내고, 일대일 수업인데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그래요.(참여자 B)

치료적인 부분이 좀 더 요구되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계속 경직이 진행 중인 순회학생의 경우 적어도 주 세 번 그 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만져줬을 때 이 아이 경직을 더디게 할꺼라고 생각하죠, 그 학생도 처음 만났을 때는 자세가 더 나빴거든요, 근데 치료지원도 하고, 순회수업도 계속되면서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스킨십하고, 속삭여주고, 노래하고, 다독여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아이들한테는 자극이에요, 눈에 확확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략)... 이런 건 내가 당당하고 떳떳해야 할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 왠지 눈에 보이게 막 하는 것 같지 않아서 괜히 내가 위축되고 그럼 안돼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어루만지고 속삭여 주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왠지 내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중략)... 치료의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의 치료 장면을 찍어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했어요, 80분 동안 중증 아이 지도하면서 온전히 수업만 하는 거는 힘들어요.(참여자 C)

또한 순회교사들은 학생의 장애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경우 공통교육과정이나 기본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학생들은 경증이었어요, 그래서 일반교육과정에서 단계를 낮춰서 교육과정을 구성했죠, 예를 들어 5학년이면 1학년으로 짜서 과목은 쓰기, 한글, 숫자 정도로 수업을 했어요, 장애정도가 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가정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학습이 너무 안 된 경우였어요, (참여자 A)

교육과정을 보면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수업 할 때는 여러 과목을 통합해서 하더라도 메인 과목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면 ‘메인 과목을 과학으로 한다’ 그러면 공기에 대해 학습할 때 풍선 속에 공기를 넣으면서 공기를 느껴보고, 풍선 바람도 빼보면서도 공기를 느껴보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요.(참여자 A)

센터에서는 그 학생 수준에 따라서 공통교육과정 적용했어요, ...(중략)... 학년을 낮춰서 하거나, 학습부진 자료를 활용하기도 했어요.(참여자 H)

순회교사들은 교과별로 나누어진 수업의 운영이 부적절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서로 연계하여 범교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주로 감각적인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교과별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업의 목표가 뭐냐 물어본다면 교과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자극,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같은 거를 제공했을 때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서 학생의 선호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수업에 활용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죠.(참여자 B)

실제로 내가 하는 걸 들려주거나 여러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했죠, 혼자 누워 있는 것보다 나와 있을 때 어떤 자극이라도 주고 그걸 재미있어 하면 그게 내가 교육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국어를 하면서 수학적인 것을 적용한다든지 중첩 교육과정을 해도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E)

과목별로 뭐뭐뭐 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거 밖에 안돼요, ...(중략)... 교과의 의미를 탈피해서 예를 들어 감각통합운동부 경우에 여러 가지 구슬 끼우기, 반죽하기 하잖아요, 능력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거든요, 각 과목별로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니까, 6~7과목 다 하는 게 아니라, ...(중략)... 되는 부분을 추출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죠.(참여자 H)

교사들은 순회수업을 운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학생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수업이나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사가 학생의 반응을 살피며 학생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한 수업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이숙정, 2013). 또한 교사들은 교과 개념을 탈피한 범교과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수학급 미설치교의 경우, 순회교사가 학생의 장애 정도나 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이시현, 2013), 교과목 위주의 수업보다 생활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범교과 위주의 수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소라, 2009)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교사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일이 교사 각자에게 모든 것을 내맡겨둔 채 교육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순회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적정 순회교육을 향하여

1) 적정인력, 적정계획, 적정교육과정

순회교사들은 순회수업의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의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의 상태와 수에 적절한 교사 및 보조인력의 추가배치, 이동거리를 고려한 교사배치, 효율적인 학생 배치나 순회학급설치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애들도 많고 상태도 다양하잖아요, 교실 수업은 실무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혼자 시설 순회수업 하기에는 버겁고 힘들죠, 그래서 시설은 학생 수에 따라 선생님을 두 명 정도 붙여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 집'도 지금은 교사 혼자 수업 가는데 전에는 학습이 되는 학생들, 낮은 수준 학생들로 나뉘어서 순회수업 3회 중 2번은 분리, 한번은 합반으로 수업해서 좋았어요, 이런 경우가 가능했던 거는 학생들이 중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3명 중에 1명이라도 최종도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손이 가느라고 나머지 두 명은 수업을 못하게 되고 실무원 선생님 같은 보조자가 필요해지거든요, 심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 누군가 옆에서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참여자A)

우리학교가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은 시설순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시설에 학생이 많은 경우 특수학급 인가를 하나 내주고, 특수교사가 상주하면서 지도하는 파견학급을 많이 운영하는데, 우리 지역만 안 그러는지... (중략) 왜 파견학급을 안 내고 우리 학교의 순회학급으로 운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설에 애들이 있다 없다 그리고 학년도 폭이 너무 넓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시설 순회가 많다보니 좀 다르죠, 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급간이나 학년이 다른 애들이 그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그 애들을 다 묶어서 학급을 묶을 수는 없잖아요, 담임이 수업을 나간다 그러면 같은 시설에 3~4명이 나가야하는데 그렇게 구성할 수는 없으니까, 서류상으로 가급적 동 학년인 애들을 묶어서 합반을 하는 거고 재택 수업 나가는 애들은 최대한 가까운 거리, 교사의 이동거리가 줄어야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시간을 나갈 수 있잖아요, (중략) 근처 근처를 묶어서 선생님들이 하루에 세 타임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참여자 B)

예전에는 초등 순회반은 초등교사가 다 커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초등만 순회반이 있었으니까..... 2004년에는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 순회 수업만 했죠, 순회반이 많아지면서 달라지게 됐어요, (중략)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 IEP를 권한을 받아 작성을 하면 안 되냐 했는데 시스템적인 부분이라서 어렵다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실제 수업 나가는 선생님이랑 협조를 해서 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해야 될 거 같아요.(참여자 C)

관리자들이 관리를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3회 수업은 똑같았는데, 학생 치료 시간 같은 거에 맞춰서..... 요일마다 시간이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순회수업을 나가는 횟수는 지금처럼 3회가 아니라 4~5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출장비도 더 들어가고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교사가 IEP를 3개 학년을 짤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초1, 2, 5학년 거를 다 작성하는 거예요, 초등 순회1반에 여러 개 학년이 섞여 있으니까..... 지금은 학년별로 묶어 있잖아요.(참여자 H)

순회교사들은 수업을 주 5회 운영 하는 것이 다양한 교과목을 학생에게 적용하기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주 5회 수업 운영 시 학교 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순회교사들은 주당 학생 방문 횟수는 3회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수업 시간은 40~50분 사이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주 5회 수업하면 ... (중략) ... 학생들한테는 좋겠죠, 지금처럼 주 3회 수업하면 교육과정을 골고루 하기가 힘들잖아요, 애들이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하게 되요, 수업일관성은 좀 없게 되죠, 그렇다고 주 5일 가게 되면 학교업무도 할 시간도 없고, 교사가 너무 힘들잖아요, 오히려 하루에 수업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순회수업을 주 4회하면서 학교 업무 시간을 주면 학생들한테 좋은 순회수업 시수가 되겠네요.(참여자 A)

주 5회 수업하면 학교일은 어떻게 해요? 그럼 완전히 수업전담으로 해야죠, 수업전담으로 운영하면 학교 업무는 못하죠, ...(중략)... 지금 치료지원이랑 방과 후 수업이랑 순회교사 가는 횟수까지 하면 5회 되잖아요, ...(중략)... 아이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80분 수업하는 거,, 길쭉, 40분이나 5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피드백이 되면 20분짜리도 30분, 40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활동이 10분 내로 끝나잖아요, 그럼 뭘 해요, 멀뚱멀뚱 민망하게, ...(중략)... 한 시간 안에 뭘 해야 한다는 거는 어떤 활동을 구조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건데, 돌아오는 게 없이 제가 계속 제공만 할 경우는 힘들어요.(참여자 H)

순회수업의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들은 IEP 작성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반기의 IEP 작성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6개월 분량으로 IEP를 작성하기 보다는 3개월 정도로 짧게 계획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

한 학기는 너무 많아, 한 두세 달 정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있고 하면서 나머지 세 달을 짜는 게 좋겠어요, ...(중략)... 3개월 짜는 건 충분히 어떻게 해보면 될 거 같아요, ...(중략)... 아니면 시간을 더 주거나, 처음에는 학생들 파악도 안 되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에 IEP 짜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참여자 A)

일괄등록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 짜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을 행정적으로 보내야 하잖아요.(참여자 B)

3월에 한 학기 분량을 현재 짜고 있는데..... 짐작을 해서 짰는데 애들에 따라서 그 향상되는 폭이 더 좁은 애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정해진 대로 가지를 얹으니깐..... 한학기가 아니라 기간을 좁혀서 짰으면 좋겠어요, 3월에 기본적인 게 나오고, 4월 한 달 동안 더 아이를 지켜보고 최종적인 거는 5월에 나온대거나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참여자 C)

순회교사들은 순회수업의 개선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수업에 구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정신지체 경우나 학급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체장애 애들은 그나마 중복장애도 심하고... 중도 중복장애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그것을 참고 할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은 어디까지나 틀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 기본 틀에서 교사가 더 연구해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생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과는 안 맞는다, 많이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거죠, 더 낮추고 더 세분화해서 해야 아이들에게 맞아진다고 생각해요.(참여자 A)

국특원에서 중도 중복장애 애들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수학교에서도 시범 운영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연구 사업 한다 했어요, 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자기들이 개발해서..... 그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만큼 중증이래요, 얼마 전에 새 교육과정 적용해서 결과 발표했다고 하던데,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중증 중복장애 교육과정에서 순회교육과정을 수정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지금의 기본교육과정과 우리 애들에 갭이 크니까..... 그 갭을 교사가 다 메워야 하니깐 그건 어렵죠.(참여자 B)

항상 생각되는 건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최종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되겠죠, 음..... 작년부터 국특원에서 중복장애학생들 위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연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작년에는 수용언어, 표현 언어 그렇게 몇 가지가 나왔구요, 연차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 해서 반가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장애가 심한 학생들에 경우는 그걸 참고해서, 연관성을 갖고 IEP를 짰어요, 수용언어는 국어나 사회과목이랑 연관 지어서 짤 수 있었어요.(참여자 C)

순회교육의 연간 수업일수는 법적으로 150일이지만 30일을 감축하여 최소 120일 이상이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학습, e-learning과 자율학습 등이 순회교육일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회교사에 의한 120일 이상의 순회수업일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이동원, 류재연, 박경옥, 2013). 순회교사가 학교 업무와 수업을 병행하기에는 주 5회 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 3회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강성중, 2000; 이경태, 2015). 이러한 주당 수업시수나 연간 수업일수에 관한 문제는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교육권 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업일수나 횟수의 문제는 기관이나 교사의 편의보다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정 일수를 지키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순회교사 및 보조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IEP 작성 기한에 관해서는 IEP의 작성 날짜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이경태, 2015)의 결과처럼, 순회교사들에게 충분히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최종도

학생을 비롯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순회교사들이 국가 수준 또는 시·도 수준에서 순회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적용할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적용할 교육과정이나 지도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선행연구(김현집, 손승현, 2010)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순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적정 인력, 적정 계획, 적정 교육과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순회교육대상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순회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키기 어렵게 된다. 이런 이유로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순회교육의 개선을 위해 초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 우연히 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된 적이 있었어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랑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랑, 심리치료사, 그리고 순회교육 담당하는 저까지 4명이 모여서 담당학생 사례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 단순한 등교 거부인줄 알았더니 더 복잡한 일이 있었던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4명이 각자 자기 분야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사회복지사는 반찬 배달이랑 청소 도와주시는 실버봉사자를 보내주셨고, 치료적인 부분을 위해서 상담사는 미술치료를 보내주셨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을 담당했죠, 그렇게 1년을 지속해서 지원했어요, (중략) 이렇게 그 아이 삶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센터 순회는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연계가 안 되고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죠, (참여자 B)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진단을 해서 10명의 전문가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의사가 보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심각한 상태였죠, 알코올 중독 전문가와 상담가는 기초 수급자인 어머니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상담을 했고, 사회복지사는 여러 지원을 약속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종일반에서 수업 받도록 해서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알코올중독으로 애를 돌보지 않던 어머니가 점차 회복되시고 학생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좋았죠,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E)

시도를 해보긴 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담임교사와도 상담을 해봤는데 한 명의 아이를 위해 모이라고 하기가 그 사람들 시간도 자유롭지 않아서 모이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시간을 딱 맞춰서 모이기도 힘들고 제가 모이라고 할 주체도 아니고요, 힘들어요, (참여자 G)

순회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 순회교육 경력이 있는 교사로부터 노하우를 듣고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고 있었고, 또한 동료 교사나 순회동료교사들과 모임을 통해 정보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순회랑 관련해서 교육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런데 순회연수 관련된 동영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지도나 구체적인 순회수업에 대해서 경력교사가 순회선생님들한테 자기 노하우도 알려주고, 자기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육과정 적용사례를 알려준다든지 하면 순회교육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엄청 좋죠, ...(중략)... 학기 초에 선생님들 썩 모아놓고 연수 같은 모임을 한 번씩 해주면 좋겠어요,(참여자 A)

순회교사만 위해서 연수를 따로 한 적은 없지만 간간히 국특원에서 중도·중복장애 연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수라는 게 수요자한테 맞춰서 하는 거다 보니 수요가 많이 없을 것 같은 순회연수는 많이 안하겠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동영상 찍은 거 같이 보면서 수업분석 하자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모임이 필요했는데 그동안 이뤄지지 못했죠, 학교의 수업이나 업무 같은 거 처리 하다보면 필요성은 느끼지만 누구 한사람이 이끌어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모임에 선생님들 많이 모였잖아요, 이런 모임이 활성화 되면 좋겠어요,(참여자 C)

그리고 지난번에 순회선생님이란 중도 중복장애학생 동아리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 모여서 수업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가졌잖아요, 그 때 수업하다가 선생님들마다 각자 힘든 학생들 이야기하고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활발하게 정보공유 했잖아요, 정말 좋았어요,(참여자 H)

순회교사들은 가정, 시설 등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생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주로 양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장애아동을 돌보며 힘들어 하는 보호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지원함과 동시에 순회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그 집에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걸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부모 교육이랑 관련된 말을 해야 되요, 어머니 성격도 충분히 파악하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이를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은 엄마거든요, 저처럼 제3자 입장에서 뭐라 하기에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참여자 A)

주 양육자랑 상담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죠, 그걸 바탕으로 이것저것 투입했을 때 때로는 부모가 한 번도 안시켜봐서 몰랐던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엄마들이 '담임쌤이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구나', ...(중략)... '선생님이 저런 걸 하니까 미소반응 보이고 좋아하네' 라는 걸 부모님이 알게 하는 것도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 B)

이런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한다는 정보제공 교육보다는 가족지원에 의미로 부모 상담을 꼭 해야 하는 케이스였어요, ...(중략)... 한 달 만에 엄마랑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중략)...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는가는 엄마만 천날만날 상담해도 소용없어요, 집단 상담 같은 방법으로 가족지원을 제공해야지..... 엄마, 아빠,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족지원프로그램 해봐서 알지만 4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가족체육대회 한 번 하면 간단해요, 가족 다 오라해서 교육 안 받아도 되는 훌륭한 엄마들 와서 에너지 넘치게 체육대회 하면 400만원 금방 쓰죠, 그런데 그게 가족지원이 되는거냐 하면..... 그래서 작년에 고민하다가 가족지원으로 집단상담이랑 악기연주 운영했잖아요.(참여자 B)

학생 집 앞에서 40분을 기다렸어요, 포기 안했죠, 어머니가 집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전에도 선생님들이 수업 못하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집안에서 발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도 들리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중략)...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그 집 밖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그 때부터 문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무게감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략)... 엄마들이 건강해야 우리 애들이 건강하겠구나 생각 들죠, ...(중략)... 부모 교육이라는 게 우리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엄마들이 마음에 여유를 갖고 마음의 힘을 갖는 것도 부모교육적인 부분에서 좋다고 생각해요.(참여자 C)

당연히 있어야죠, 문제는 '어디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는 건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특수학교 경우에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중략)... 담임교사가 가는 거 보다 나름에 전문가가 좋을 거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교육하면 만날 오시는 분만 오시잖아요, 그 분들 말고 안 오시는 분들이 해야죠.(참여자 H)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힘들어 하셨어요, 형편이 거의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맞벌이 상황도 아니다 보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셨어요, ...(중략)... 아이가 계속 울고 그래서 베개로.....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2시간도 넘게 우는 아이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힘드셔서 울기도 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많이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지 않느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도록 말씀드렸어요.(참여자 J)

교사들은 순회교육 대상학생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초학문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원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순회교육대상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건강 서비스 전문가, 치료교육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 단체 등을 포함하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정재권, 정진자, 정대영, 1995)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재택순회교사들의 팀티칭 중요성에 대해 주장한 연구(황금희, 2004)와 순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수교사와 관련서비스 담당자가 일정한 회기 동안 함께 순회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초학문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결과(이동원, 류재연, 박경옥, 2013)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특수교육현장이 초학문적 접근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순회교육 현장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초학문적 접근이 요구되는 현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역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초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명의 학생을 위해 지역사회가 움직이는 모습,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 개인의 역동성을 끌어내려는 노력, 그 결정체로서의 순회교육의 위상재정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순회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연수나 순회교사 모임을 통해 해결하고 순회교육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회교육 관련 연수나 모임을 통해 순회교사들이 전문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는 선행연구(김현집, 손승현, 2010; 이경태, 2015; 이미숙,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사들은 순회교육에서 학생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영역이 주 양육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 또는 가족에게 교육이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인 순회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선행연구(김은숙, 김정연, 2013; 서중숙, 2002; 소라, 2009; 이경태, 201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순회교육 대상학생들이 실존하는 생태학적 동심원의 핵심에는 가족이나 주 양육자가 위치한다. 장애의

중도·중복화 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이 중요한 이유이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육 관련 분야의 초학문적 전문가들에 의한 팀 접근을 통해서 학생과 생태계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그리고 그들의 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진정한 ‘생태학적 교육서비스’로 그 위상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순회교사들의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순회수업 담당 교사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개의 의미단위, 6개의 하위범주, 2개의 상위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상위범주인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 각자도생(各自圖生)’은 ‘적용할 교육과정의 부재’, ‘형식적인 IEP와 교사 혼자만의 고뇌’, ‘소외감과 위험함’, ‘순회수업은 저마다의 방법으로’라는 네 개의 하위 범주로 묶을 수 있었다.

‘적용할 교육과정의 부재’라는 하위 범주의 의미단위를 살펴보면, 먼저, 순회학급 교사들이 최종도의 학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최종도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할지, 치료와 교육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등 매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성은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실태, IEP 작성 기한이 촉박하여 시간과의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IEP를 작성하긴 했지만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으며 부끄러워하는 마음 등은 ‘형식적인 IEP와 교사 혼자만의 고뇌’라는 하위범주로 묶여, 왜 각자도생활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수업할 장소마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미설치교에서는 찬밥인 순회교사, 매번 자가용을 타고 다니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로 위 순회교사와 같은 의미들은 ‘소외감과 위험함’이라는 하위범주로 묶임과 동시에 순회교사 각자도생의 실체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결과적으로, ‘순회수업은 각자 저마다의 방법으로’라는 하위 범주는 마치 백일 된 아기를 대하듯 잠재된 반응을 하나하나 이끌어 내야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학생들의 장애정도와 교육적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교육과정을 골고루 활용하고 있는 교사, 교과별 지도보다는 범 교과 형태의 수업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는 교사 등의 모습으로 수업에서의 각자도생을 표현해주고 있다.

두 번째 상위범주인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적정 순회교육을 향하여’는 다시 ‘적정인력, 적정계획, 적정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적정인력, 적정계획, 적정교육과정’은 실제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적정 순회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수에 맞는 교사와 지원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 교사들이 학교 업무와 순회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업시수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 IEP는 한 학기 단위보다 3개월 정도로 짧게 계획하고 평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에서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초학문적 접근이 필요하며, 순회교사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고 자조모임을 통한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 양육자를 포함하여 심리적 건강회복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들의 경험과 의미를 두 가지 상위범주로 구분한 것은 순회학급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과 순회교육의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구분해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상위범주의 내용들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향후 순회교육의 발전을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중도·중복장애학생, 특히 최중도 장애학생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이다. 치료와 교육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회교육의 현장에서 교사 개인에게만 순회교육의 모든 책임을 맡겨 놓고 각자도생하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의 개발과 함께 개별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IEP가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로 가동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개별화 지원팀이 아니라 학생의 생태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초학문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IEP 팀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평가와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근거한 IEP 적용이 가능하도록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그 실행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팀 운영과 함께 학생 수가 많은 경우는 교사를 더 배치하고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보조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이동에 따른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량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업무와 수업시수 부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수업시간 배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순회교육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들이 순회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료지원, 가족상담 및 지원 등 개별 학생이나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함양하는 연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 교사 모임이나 연구회 등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대안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복잡하고 독특한 만큼 지역사회에 기반 한 전문가 그룹의 지원도 학생의 가정과 가족에 대한 지원, 의료와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지원, 법률 및 행정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 개별 학생과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생태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중 (2000). 재택·순회 교육 운영 방안의 효율화 연구. **중복·지체부자유아 교육**, 35(1), 215-233.
- 국립특수교육원 (2014). **2014 특수교육실태조사**.
- 권순향 (2004). 재택·순회 교사의 교육활동과 재택·순회 대상 학생의 가정환경간의 관계.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123-137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0-44호)
- 교육부 (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김은숙, 김정연 (2013). 순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779-783.
- 김은주, 강영택, 권택환, 이인(2013).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7(3), 163-185.
- 김현집, 손승현 (2010). 통합교육형 순회교육 운영 현황과 순회교사의 인식. **통합교육연구**, 5(2), 19-39.
- 김혜정 (2015).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의 운영에 대한 순회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미숙 (2006). **경기도 중등학교 재택순회교육 실태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박선정 (201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직무수행 인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서종숙 (2002). **재택순회 교육 운영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소라 (2009). **중도·중복장애 학생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수행 어려움에 대한 연구: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송여미, 박희찬 (2014).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의 성인기로의 전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한국 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1), 1-19.
- 안수경, 김영태, 전현선, 정동일, 한현민 (2005). **치료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 양금란 (2006). **강원도 재택·순회교육 운영실태 및 효율적 운영 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세웅 (2014)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3). 107-131
- 옥정달 (2004). 재택·순회교육 대상아의 가정환경 및 기초능력에 관한 실태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4). 317-340
- 이경태 (2015). **순회교사의 교육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대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귀숙 (2005). **중등 특수학급 순회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금하 (2008). **재택·순회교육에 대한 통합학교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동성, 김영천 (2014).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한 포괄적 분석절차 탐구: 실용적 절충주의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2(1). 159-184.
- 이동원, 류재연, 박경옥(2013). 순회교육 운영실태 및 지원요구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2). 255-280.
- 이미숙 (2013). 기간제 순회교사로서의 경험을 통한 역할 적응 및 수행에 대한 질적 접근. **특수교육학연구**, 48(3), 341-363.
- 이상복, 김종한, 조재규(2007). 순회 치료교육활동의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1). 249-277.
- 이시현 (2013). **순회교사의 입장에서 본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실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이숙정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19-42.
- 이혜전, 임경원 (2012). 특수교육에서의 ‘좋은 수업’의 개념과 수업평가 기준 개발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지적장애연구**, 42(4). 197-223.
- 이재현 (2013). **순회교육에 대한 교사의 경험적 의미: 순회교육의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전병운 (2013a). 2012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개정 방안, **2013년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3-21.
- 전병운 (2013b).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성격 규정을 위한 논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포럼**, 64-78.
- 전병운, 임해주, 김경민 (2014). 2011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의 운영 경험과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 대전, 충남 지역의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2). 203-225.
- 전현선 (1998). 특수교육대상자 재택·순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재활복지**, 2(1). 48-77.
- 전현선, 정재익 (2003). 특수학교 재택·순회 교육 담당 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2(2). 35-51.
- 전현선, 민강기 (2007). 재택·순회교육 담당교사의 치료교육활동 운영 현황 및 요구 분석. **특수교육재활학연구**, 46(2). 179-199.

13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4호)

- 정대영 (1997). 순회교육의 운영 방향. **현장특수교육**, 4(3). 8-29.
- 정동영, 정대영, 이효자, 이유훈, 이해균, 박희창 (1996). **특수교육 지원교사 및 순회교사제 운영방안**. 국립특수교육원.
- 정동일 (2001). 한국의 재택·순회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향, **현장특수교육**, 8(5). 14-19.
- 정재권, 정진자, 정대영 (1995). **중도·중복 학생의 지도의 실제**. 국립특수교육원.
- 조영훈 (2001). **재택·순회 교육 담당 교사의 자질과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최하영 (2011). 장애학생을 위한 국내 재택·순회교육 연구의 동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633-653.
- 한경섭 (2013).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학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한정희, 조윤경 (2004). 장애아동 사설 재택·순회교육에 대한 참여 부모와 교사 집단의 실태보고. **특수교육**, 3(2), 5-24
- 황금희 (2004). **재택·순회 교육 지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Itinerant Teacher's Experience and Meaning on the Itinerant Classroom Curriculum Operation

Go, Eun-jeong

Cheoungju Hewha School

Lim, Kyoung-w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itinerant teachers with basic information helpful to run the itinerant classroom curriculum, by noticing the problems through the experiences and the meaning that they could encounter throughout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itinerant classroom curriculum and then by navigating effective improve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abov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itinerant teachers and target data obtained through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analysis procedures based on pragmatic eclectic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ultiple difficulties, including IEP writing, caused by the absence of the curriculum to apply for severe-dupli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study suggested ways to improve on this situation and operational needs, such as the number of itinerant classroom during lessons, IEP writing, and the teachers' arrangement along with severe and multiple curriculum development.

This paper proposes that while operating on classroom management, the itinerant education teachers feel the difficulties and a wide range research be necessary about the difficulties and improvements. Moreover, the paper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on itinerant training courses suitable for various disorder types should be needed.

Key Words : itinerant classroom, itinerant classroom curriculum, itinerant class, itinerant teacher

논문 접수: 2015. 11. 05 심사 시작: 2015. 11. 10 게재 확정: 2015. 12. 14